

지방분권·자치 강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의지 있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달 중순 최종보고·심의
기반 부족 호남 지원책 미흡
朴정부 계획과 큰 차이 없어

과거 국토불균형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여전히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책 중앙집중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 중이다. 올해 2월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갖고, 이후 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수립 방침 결정 등에 이어 광주시 균형발전계획안 중간보고, 이달 중순에 최종 보고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국토 동서축 불균형, 광역자치단체 간 불균형, 광역자치단체 내 불균형,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등 국토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사례 전반을 수집하고 5년간 이를 해소하

기 위한 행·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 같은 내용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광주시, 전남도 등에서는 균형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계획(2014~2018년)과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에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대책이 추가되는 정도다. 정부부처에서 수립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은 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 결과 발생한 호남권에 대한 불균형 피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주요 내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5+2광역경제권 설정',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과 유사하게 '국가균형발전계획'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특회계)의 지역 균등 배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6일 청와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조직을 축소하기도 했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역수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중이다"며 "자립적 성장기반이 미약한 지방에 대한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없다면 사실상 이러한 목표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시민문화관' 오늘부터 무료 개방 금호아시아그룹(회장 박삼구)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그룹 창업주 고(故)박인천 회장 자택을 '금호시민문화관'으로 단장, 5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5523㎡(약 1700평)에 달하는 금호시민문화관은 본채와 사랑채 등 주택과 유명 조각가들의 예술작품 14점이 수목과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다. ▶관련기사 16면

고수온·태풍에 전남 양식장 '썩대밭'

전북 7000여 만 마리 폐사
피해 신고액 900억 원 육박
우럭·광어 등 피해도 눈덩이

사상 최악의 폭염과 태풍 '솔릭'의 직격탄을 맞은 신안과 완도에서 전북 7000여만 마리가 폐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액이 900억 원에 육박했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전북 양식 기반이 통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 신안 흑산도 일대 전복·우럭 폐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현재 흑산, 도초, 하의, 신의, 암태, 장산, 안좌 등 양식장에서 폐사 신고된 전복은 230여가, 3040만마리(227억12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조피볼락(우럭)은 83여가 1681만 마리(285억1500만원), 넙치(광어)도 2여가-

21만마리(1억1000만원)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남해수산연구소 등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고수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남도가 보고 있다.

신안군은 집단 폐사 발생 초기 전남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아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달 6일 처음으로 우럭 1만 마리 폐사 신고가 접수됐으며 산발적으로 피해가 확산했다. 지난달 20~21일에는 아페류가 대량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 여부가 입식 신고를 하지 않고 보양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안군이 보고를 지연한 것 같다"며 "제때 보고만 됐더라면 액화 산소 지원 등 조치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입식 신고나 재해보험 가입을 소홀히 한 어민들은 막대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까지

피해 여가 가운데 입식 신고를 한 곳은 전북 118여가, 우럭 20여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융자금 상환 연기, 특별 융자금이나 생계 지원 등 간접 보상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태풍 '솔릭'에 휩쓸린 완도 전북 양식장도 썩대밭이 됐다. 완도읍을 비롯해 금일, 소안, 약산, 보길 등 모두 346여가의 전복 4077만 마리(373억원 상당)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과 완도에서 폐사한 전복은 7117만 마리다. 다른 수산물까지 합치면 모두 8819만 마리, 피해신고액은 신안 513억 3700만원·완도 373억원 등 모두 88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북이 고수온이나 태풍으로 타격을 받아 생리기능이 저하된 상태라 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특사단 오늘 방북
문대통령 친서 휴대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5일 평양을 방문하는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중 평양에서 열리기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정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금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또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특사단은 이를 명심하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사단은 내일 오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 뒤 오후 늦은 시간까지 평양에 체류하며 북한 지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서울 귀환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정 실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금년 중 종전선언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메시지를 가지고 방북하는 나"는 질문에는 "미국과는 늘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방북 이후 일본 방문 계획이 있는냐"는 물음에는 "특사단 방북 이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본사인사

▲ 김일환 : 이사·편집국장

(9월 5일자)

광주일보
소상공인 울리는 캠프·남구청
-임대 장사에 35개 점포 문 닫아 ▶6면
전라도 정도 1000년 인물 열전
-해남 공재 운두서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8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

9.7-11.11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광주시내 일원
주최·주관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43개국 165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국가, 세대, 민족 간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경계들에 대한 재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로 꾸며지는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비롯해 광주 전역을 동시대 시각 문화 현장으로 펼쳐냅니다.

www.gwangjubienale.org

NAVER NAVER 문화재단 ISU 이수그룹 광주시민에게 대한유화주식회사 KOLON MOTORS 영무예다음 한화손해보험